



영산강문화관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문화관 일원에서 '2023 영산강 환경문화대'를 개최한다.

<영산강문화관 제공>



'구름과 물 동시적 관조'

환경과 힐링의 의미를 담다

'2023 영산강 환경문화대'

7~9일 영산강문화관 일원

나눔·환경전시 등 7개 존 조성

힐링 피크닉, 환경 전시&공연, 친환경 놀이, 나눔, 제로웨이스트 캠프...

환경문화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행사가 마련된다.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단장 이현아)·KWECO 영산강문화관(관장 신성규)이 진행하는 '2023 영산강 환경문화대' 이 그것.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Eco Healing & Harmony'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행사 취지에 맞게 아름다운가게를 비롯해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공유센터,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유관단체들이 참여한다.

신성규 영산강문화관장은 "이번 행사에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먹고 즐기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환경문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선보인다"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환경과 휴식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콘텐츠는 모두 7개 존으로 조성했다. 힐링피크닉, Eco마켓, 친환경 놀이, 나눔, 환경전시&공연, 자전거 특화, 제로웨이스트 캠프 등이다.

먼저 '힐링피크닉 ZONE'은 캠핑과 피크닉 소품으로 이루어진 승촌공원에서 마술과 버스킹 공연 등을 즐긴다. 'Eco마켓 ZONE'에서는 환경과 힐링 컨셉의 업체와 연계해 친환경 제품 판매와 테라피 체험 부스와 간단한 먹거리 부스도 운영된다.

테마가 있는 환경문화 놀이존도 있다. '친환경 놀이 ZONE'에서는 탄소중립 캠페인이나 승촌공원 자연 생태를 관찰하는 활동이 펼쳐진다. 자원순환,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나눔 ZONE'에서는 아름다운 가게와 연계해 임직원들의 기부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독거노인 설 꾸러미 나눔 캠페인)' 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환경문화 전시&공연 ZONE'에서는 2023 영산강 어린이 환경 미술제 수상작을 감상하며 실내 기획전시실에서는 특별 전시 '모두를 위한 에코하모니'가 진행된다. 전시장 중앙에 조성된 이글루 체험존은 종이 장난감을 비롯해 종이 가구, 환경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밖에 '자전거 ZONE'에서는 사전접수를 통해 전기자전거 시승을, '제로웨이스트 캠프 ZONE'에서는 저탄소 식생활 교육, 로컬푸드 요리 경연대회 등 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 또는 사전예약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문화관 네이버 카페 또는 안네데스크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연의 순환, 물의 속성

강운 '구름과 물, 동시적 관조' 전, 28일까지 강진아트홀

서양화가 강운 작가의 작품은 관조와 성찰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 많다. 중심에 마음을 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구름과 물 등 자연은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소재들로, 작가는 자연의 순환을 사유의 기제로 활용한다.

강운 작가의 '구름과 물, 동시적 관조' 전이 강진아트홀에서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회화 작품 116점이 출품됐다. 작가는 구름과 물을 매개로 자연의 순환과 본질을 탐색하며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관조한다.

강 작가는 "고향 강진의 자연을 보고 느끼며 저에게 저의 내면에는 강진 특유의 감수성이 깃들여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전시가 고향에서 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문화예술 콘텐츠가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자연의 순환, 물의 속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왼쪽부터 구름-물방울-구름-물방울 순서로 작품이 배치돼 있어 감각적으로 자연의 본질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전시장 가운데 벽면은 무수히 많은 물방울 작품들이 응결

돼 하나의 구름 같은 형상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물 위를 걷다' 연작, '공기와 꿈' 연작이 중심이다. 작가의 구도적 작품세계를 아우르는 의미있는 작품들이다. 종이 위에 순간적이고 유희적인 일획으로 그린 '물 위를 걷다'와 수많은 한지 조각을 이용해 노동집약적으로 구름을 표현한 '공기와 꿈'은 다른 성격의 결과물이지만 이색적인 아우라를 선사한다.

전자의 작품 이미지가 하나의 물방울을 확대해 보여주는 것이라면, 후자의 구름은 미세한 물방울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두 작업 속 구름과 물방울은 형태만 다를 뿐 '수분(水分)'이라는 속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적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백종욱 미술생태연구소장은 "이번 작품들은 물방울과 구름을 모티프로 각기 다른 미시적, 거시적 세계를 관조하는 작가의 심미적 세계를 보여준다"며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자연을 단순히 환경적 관점이 아닌 생태적이며 순환적인 관조적인 시각으로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충장축제와 함께하는 소품전'

광주사생회 정기전, 9일까지 갤러리 관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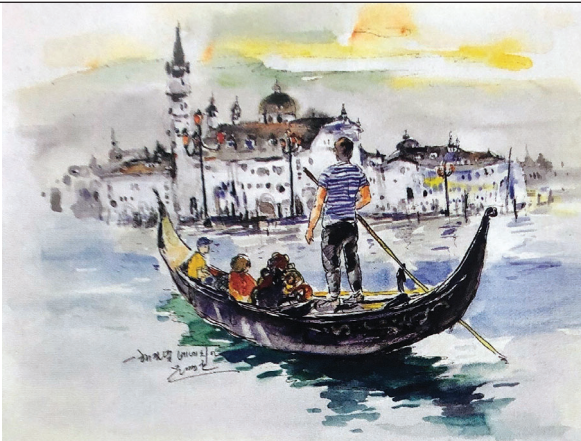
지난 1984년 창립한 광주사생회(회장 김영주)는 구상 작가들의 모임이다. 창립 첫해 거문도로 첫 단체 스케치전을 나간 후 1986년 가톨릭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이후 합동스케치와 회원전을 개최하며 꾸준한 창작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사생회가 광주 충장축제를 기념해 제38회 정기전을 오는 9일까지 연다. '충장축제와 함께하는 소품전'이라는 주제로 갤러리 관선재(광주시 동구 공동 61-2)에서 열리는 모두 47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전시장에서는 조규일, 이우진, 서봉한, 문명호, 오주현, 강성희, 이지화, 정성복, 정준수 등의 생생한 현장감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조규일 작가의 '연'이나 서봉한 작가의 '투우'는 각각 연꽃의 아름다움과 황소들의 거친 몸싸움을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붓놀림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현장에서 느낀 자연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화폭을 통해 전해온다. 문명호 작가의 '해질녘 베네치아'는 이국적인 바다의 풍경을 싱그러움과 평화로운 이미지로 풀어낸다. 오주현 작가의 '윤슬'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른 아침의 화사함과 빛나는 정취를 만날 수 있다.

반면 김영주 작가의 '폐선'은 어두운 색감으로 형상화한 쓸쓸한 바다의 풍경을 조경화한다. 작가가 바라보는 폐선에서는 우리 삶의 이면에 드리워



문명호 작 '해질녘 베네치아'

진 절망과 어두운 그림자가 투영돼 있는 듯하다.

전시장에서 만난 서양화가 김은아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들이 야외에서 스케치하면서 각기 다른 각도에서 그린 작품들 중 좋은 작품 위주로 출품했다"며 "충장축제와 맞물려 개최되는 터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리턴즈

광주독립영화관, 7일 국·내외 수상작 상영...감독과의 대화도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에서 수상한 단편작품을 감상한 뒤 감독, 출연배우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3 순회상영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 리턴즈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오는 7일 진행된다. 오후 4시에는 먼저 해외 수상작을 상영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국내 수상작을 상영한다는 계획.

해외 수상작 중 국제경쟁 관객상을 받은 '얼음상인'은 아버지와 아들이 절벽에 매달린 집에서 뛰어 내리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당일 생산한 얼음을 팔기 위해 지상으로 떠나는 이야기다.

국제경쟁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도망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이방인에게 거처를 제공하면서 펼쳐지는 서사를 담았다. 이외 앤서니 잉 감독의 '영화 크레딧 없는 배우, 질', 시디 카람

루디의 '파랗게 변하다'도 볼 수 있다.

국내 수상작은 총 세 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김효준의 '차르고 불이' <사진>는 엄마가 자신 몰래 만든 신용카드의 존재를 알면서 대응하는 작품이며 윤솔빈의 '새빨'은 전남친과 신던 커플 운동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는데 전남친에게 연락이 오면서 펼쳐지는 내용.

끝으로 윤동기의 '어나더타운'은 공인중개사 장태수가 아들이 실종되면서 벌어지는 고군분투기를 그렸다. 국내·해외 전 작품 15세 이상 관람가.

수상작 상영 후 GV도 진행된다. '어나더타운' 임호준 배우, '새빨' 오한울 작가, '차르고 불이' 황재필 배우와 세 작품의 감독들이 출연해 관객과 대화 시간을 갖는다. 광주독립영화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양림예술축제' 사랑의 콘서트

(사)빛고을예술단, 7·21·31일 3회 걸쳐 진행

10월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문화의달'이다.

문화의달을 맞아 (사)빛고을예술단이 744회 '양림예술축제'를 펼친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원에서 7. 21, 31일 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

'사랑의 콘서트'로 불리는 이번 축제는 지역 문

화소외계층에게 음악을 매개로 사랑을 전하는 음악 콘서트다. 빛고을예술단(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이 설립된 2005년부터 지난 18년간 펼쳐온 공연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순회하며 음악 공연을 선보여 왔다.

오는 7일(오후 2시) 양림동 땀과마음 공예의거

리아외광장에서 재즈가수 장소영, 퓨전난타팀 지스타, 전자 오르가니스트 주유진, 보컬 최영준의 7080 통기타 공연 등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김상기 예술 총감독이 품바 공연을, 박용주 음악감독이 색소폰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31일에는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를 진행한다. 또 21일(오전 10시) 남구 양림로 학강초에서 '양림동 한마음축제'도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빛고을예술단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왕2길3(서왕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